

# 병상에서도 정치권 움직임인 DJ

## 임원 한달 '민주 대연합' 술술... 긴장한 與 'DJ 끌어안기 선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폐렴으로 지난 7월 13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여야 정치권에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병실에 누우면서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극대화되면서 현실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김 전 대통령의 심각한 병세는 정권 창출 실패 이후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물론 민주개혁진영에 경종을 울리면서 '민주대연합'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그동안 신당 창당 등을 놓고 고심하던 일부 친노 세력과 재야 진영에 민주당과의 대연합을 이뤄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10월 재보선 이전에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정세균 대표가 '반MB 민주세력 대통합론'을 제시한 바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당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통합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중용되는 등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는 민주당내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등 여권도 김 전 대통령의 병세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검찰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



투병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패유를 비는 문병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병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강력한 비판 발언을 했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이에 맞대응을 했다는 점은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바로 여권의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제2의 '조문정국'으로 확산되면서 10월 재보선 및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

향을 끼쳐 정국 운영에 심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멈추고 예우를 갖추는 등 'DJ 끌어안기' 모드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병실을 찾아 패유를 기원했고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도 병문안에 나섰다. 또,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을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신 분"이라고 극찬한데 이어 박희태 대표도 "이는 한나라당의 뜻"이라고

거드는 등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

마저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의 위중한 병세는 그동안 등을 돌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길을 이끌어 영원한 숙적이었던 YS와의 극적인 화해도 이뤄내면서 동서화합이라는 화두를 다시 한번 정치권에 던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12일 김 전 대통령의 병실에 국내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인 에바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 청용화 주한 중국대사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지도부 원내투쟁 "고민되네"

## 협상과 박지원 정책위장 임명 ... 등원 논란 예상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장외 투쟁에 집중해 온 민주당 내에서 원내 투쟁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등원론자'인 박지원 정책위의장의 인선을 계기로 원내로 투쟁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 지도부는 12일 현재까지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7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고 9월 정기국회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원내 투쟁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접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등원 문제와 관련해 "원내의 병행투쟁을 하겠다는 것과 인사 청문회 등 중요한 국정 사안에 참여해 활동하겠다는 게 두 가지 원칙"이라며 "정기국회 과정에서 정책집행, 대안정당으로서 모습을 충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주 그룹별의 의원들과 만나 등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장

은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의 강력한 투쟁장소는 국회"라며 "내 소신은 원내투쟁 우선이고 때론 내부비판도 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렇다고 9월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등원할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인다. 정 대표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핵심 인사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는 포기할 수 없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와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 일 없듯이 9월 초 들어갈 수는 없다"며 "원내에 들어가더라도 장외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 10월 재보선 "걱정되네"

## 박희태 대표직 유지·강릉 공천 친이·친박 입장차

한나라당이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박희태 대표의 거취가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진영이 분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친이 주류 측은 '이달말 사퇴'를 주장한다. 박 대표가 대표직을 갖고 출마할 경우 10월 재선거는 정권심판론의 성격이 띠게 되며 따라서 선거 패배에 대한 여권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달 말로 시한을 정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중 단행할 개

각 및 청와대 개편과 당의 지도체제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대대적 변화'라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친박 진영에서는 박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채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박 대표가 사퇴할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맡게 되고, 대립각을 세우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당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강릉 재선거도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

상황이 강한 이 지역에서 친이 후보, 친박 후보 가운데 누구를 공천하느냐를 놓고 맞대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남 친박계인 심재업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받음, "사람의 도리 중에는 의리를 지키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친박측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의 격려 방문"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차단하고 나섰다. 친이 입장에서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 김해수 정무비서관과 권성동 법무비서관 등 2명의 청와대 비서관이 강릉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공천을 앞둔 친이와 친박 간 공천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 "대통령 4년 중임·이원정부제 복수안 검토"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12일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과 관련,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4년 중임·정부형태와 이원정부제 등의 복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며 24일 국회의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복

수의 자문위원들이 전했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감사 기능 가운데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의회 직속의 독립기구인 연방회계감사원(GAO)을 본딴 방안이다.

또 국회의 정부견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삭제하자

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정부제의 경우 당초 헌법자문위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의원내각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 갖는 이원정부제를 제안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자문위는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고,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국회 해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 지지도 30%대 안착

## '친서민' 행보 등 영향 상승세

경제지표 상승과 친 서민 행보 등의 영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30%대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문정국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일부 조사에서 30%를 돌파하는 등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7%포인트)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0.3%로 전주에 비해 5.6%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지난 4월 16일(32.6%)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생계형 범죄 사면을 비롯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병문안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앞서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10일 발표한 8월 정례 여론조사(성인 800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5%포인트)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9.8%를 기록, 전달보다 무려 9.5%포인트나 급등하면서 40%대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본원출신 실제 합격자 중 80%가 여흥대학부터 공무원강좌 수강신청!! www.hanbitgosi.co.kr

**중앙선관위** 2009. 8. 27.시험 합격자 발표! 수석합격자 배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www.hanbitgosi.co.kr

7.9 =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중합반 하루9시간 강의

www.hanbitgosi.co.kr

한빛소방직전문학원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www.hanbitgosi.co.kr

김영현입학원